



“홍장원 ‘메모’ 가필 박선원 필체” 與 “尹대통령 탄핵용 내란 분명”

“필체 동일” 감정보고서 파문
신혜식 신의환수 대표가 의뢰
洪·朴 즉각 공식 필적 감정 필요
朴 “洪과 만난 적도 없다” 부인



홍장원

박선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의 메모에 가필된 글씨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감정보고서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단순한 정치공작을 넘어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24일 필적 감정을 의뢰한 신혜식 신의환수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즉각 변론을 재개하고, 홍장원과 박선원을 공개재판에 출석시켜 직접 글씨를 쓰게 한 뒤 공인 필적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명수 대진문서감정원 감정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누구의 글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개의 필적을 비교한 결과”라며 “A 문서(홍장원 메모의 가필 부분)와 B 문서(박 의원의 필적이 담긴 메모)는 서로 동

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에 따르면, 감정인은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서 공개한 ‘홍장원 메모’ 버전4의 가필 부분(감정서에서 A 문서)과 박 의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 4매(감정서에서 B 문서)를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메모 4매는 △2024년 12월7일 여인형 사령관과 대화하며 작성한 메모 2매 △2025년 2월3일 ‘트럼프 노벨상 추천’ 관련 수첩 메모 1매 △2007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 작성한 메모 1매로 구성돼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홍 전 1차장의 메모 가필이 본인의 것인지 필적 감정을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며 “검찰 또한 가필이 박 의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홍장원이 ‘지령이 메모’를 가지고 나왔을 때, 자신의 필체를 숨기려는 것이란 생각을 했다”며 “이미 자신이 가필했다는 메모가

존재하는데, 그 메모의 가필 필적과 다른 거짓말이 들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홍장원 메모 속 필적은 내 글씨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홍장원체는 ‘이어달리기 체인’에 반해, 내 글씨는 ‘독자기립형’이라 단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서 있다”며 필적 감정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또한 “해당 메모에 글씨를 쓰려면 홍 전 차장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를 만난 적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의 필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10일경 김성희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내란선동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진짜 내란범’은 이재명이며, 홍장원-박선원, 광종근-김병주 커넥션이 그 배후”라며 “100억 원에 달하는 공작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을 받은 홍장원이 박선원을 만나 전달했다는 메모지와, 직속 상관이었던 김병주에게 회유당한 광종근의 진술이 ‘가짜 내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정을 맡은 진명수 감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감정실에서 35년간 근무하며 매년 500건 이상의 감정을 수행한 전문가로, 2016년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한 경력이 있다.

김영기자jeb@skyedaily.com



애국 대학생 뜨거운 외침

윤상현(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 주최로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을 진행하는 가운데 김준희(한양대)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기쁨(서울대)·김수아(이화여대)·박준영(연세대)·유찬중(고려대) 학생이 연설자로 나섰다 조태희(광주대)·김영건(서강대)·정대교(인하대)·배연우(경북대) 학생이 참여했다. 박미나 선임기자

“거야 폭주·사법 불신… 대한민국 위기”

‘자유대학’ 5인 국회 시국선언

3·1절 탄핵반대 총궐기대회

25일 오후 1시 30분 전국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대표 김준희) 소속 5인이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 부당성 △부정선거 의혹 및 선관위 문제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 △언론의 편향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등을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촉

구했다. 김준희(한양대) 대표는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사법부의 신뢰 상실로 위기에 처했다”며 “선관위의 불투명성과 언론의 편향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기쁨(서울대) 학생은 “야당이 치안 악화와 마약 범죄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양극법 등을 ‘입법 독주’의 사례로 들었다. 또한 “야당은 북한과 중국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수아(이화여대) 학생은 “노태악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를 규탄한다”

며 사법부의 공정성 상실과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박준영(연세대) 학생은 사전투표·본투표 간 기형적 득표율 차이와 검표 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찬중(고려대) 학생은 “탄핵 반대 집회는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나 탄핵 찬성 집회 측이 불법 점거와 폭력을 행사했다”며 “언론이 이를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학’은 3월 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탄핵 반대 대학생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태욱 기자 itw@skyedaily.com

뺏뺏한 신권 투표지 또 무더기로 등장

1월 강북구청장 선거 재검표 정교모, 선관위 관련 2인 고발

서울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강북 선관위)가 관리한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올해 1월 재검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형상기억 종이’라고 주장해 온 뺏뺏한 신권 투표지가 또다시 뭉텅이로 등장했다. 선관위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선거 관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지속했는데, 부정선거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소속 김병준(강남대)·이제봉(울산대)·김대성(경기과학기술대)·이지용(계명대)·김송죽(이화여대)·남광규(고려대) 교수와 대리인 권오용 변호사는 황기선 전 강북 선관위원장(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을 비롯한 강북선관위 관계자 2인과 성

명 불상의 투표지를 위조·취거·은닉한 행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죄·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고소)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강북선관위에서 진행된 8회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2022수1012)에 의해 2년 6개월만 재검표가 이뤄졌다. 이 후보는 선거일 당일투표 결과 현 구청장인 당시 이순희

후보보다 크게 우세한 상황이었으나, 사전투표결과에서 큰 차이로 뒤처져 선거일 당일 투표결과가 뒤집혔다.

그는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법에 의해 부여된 원고 입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월6일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보관 박스 중 원고 대리인이 임의로 지정된 투표지 박스 5개를 꺼내 개봉하게 허용했다. 당일 투표 3개와 관내 및 관

외 사전투표 각 1개씩이었다.

5개 박스 전체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용지 혹은 개표된 투표용지와 바뀌어 보관된 투표지가 보관된 게 드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5개 투표함 전부가 선거 때 개표된 실물 투표지가 아닌 위조됐다는 이른바 ‘뭉텅이’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검증조서에서 원고 측 번 호사는 “투표지 박스의 봉인 상태가 허술하고 봉인된 테이프와 박스 사이로 공간이 있어 투표지가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한 투표지 전반의 상태가 개표 당시 실제 개표된 투표지로 보기에 전반적으로 새로 제작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선관위) 측 대리인은 “오늘 현장검증 결과 강북구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투개표 관리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선거구무효소송 방해 행위도 고발(고소)됐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 개표에 관한 투표지와 각종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해 검증되도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준비서면과 문서제출명령으로 투표지 로고와 개표 기록 등에 대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거절해 담당재판부의 재판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장혜원 기자 hjyung@skyedaily.com

국방의무 필하려 입대한 당신의 아들이 학살자로 매도 당한다면...

44년 만에 빛 본 5·18 출동 계엄군의 육필 수기

80년 5·18 충청작전 투입
185공병대대 장병 증언집

우리가 그때 광주에 있었다

1980년 5월 광주사태 사건 현장에 투입된 185공병대대 장병 73명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했던 처절한 심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최종원 편저 | 468쪽 | 25,000원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185공병대대 자필 체험담

5·18 역사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진실 보고서

“눈알 빠지는 고통 속에 돌아서는데 육중한 것이 등에 가해져 거꾸러졌다. 간신히 일어나 차에 오르려는데 총소리가 들렸다. M16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다.”
- 185공병대대 참모부 병사 성명 미상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최루탄 몇 발뿐이었다. 실탄 없는 총은 몽둥이 만도 못했다.”
- 185공병대대 3중대 병장 정철호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 자가 만든다”
-지만원 박사

스카이 구입 문의 02)522-6595